

2016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④	2	①	3	④	4	②	5	④
6	②	7	③	8	①	9	⑤	10	④
11	②	12	③	13	②	14	④	15	②
16	②	17	①	18	③	19	⑤	20	⑤

1. [출제의도] 불교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 이해하기

(가)는 불교의 연기(緣起)설에 대한 설명이며, (나)는 현대 환경 문제의 구체적 사례이다. 연기설의 입장에서 (나)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깨달아야 한다.

2. [출제의도] 정보 공유론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정보 공유론은 정보를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여김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3.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제시문은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법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소유주와 주주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은 기업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출제의도]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비교하기

갑은 심미주의, 을은 도덕주의의 입장이다. 심미주의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하여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무관하다고 본다. 반면 도덕주의는 예술 작품이 인간의 도덕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출제의도] 종교와 윤리의 관계 이해하기

(가)는 윤리의 근거는 신의 명령이며 신의 존재가 윤리적 신념의 객관적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나)의 가로 열쇠 (A)에 들어갈 말은 ‘도교(도가)’이며 (B)에 들어갈 말은 ‘미덕’이므로 세로 열쇠 (A)는 ‘도덕’이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서는 도덕이란 신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행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

6. [출제의도] 과학과 윤리의 관계 이해하기

(가)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나)는 과학에 대한 가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는 과학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의 진위 판단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본다. (나)는 과학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므로 윤리적 검토와 통제가 필요하며,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7. [출제의도]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파악하기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타고난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능을 통해 얻은 부의 일부를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

면 노직은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며,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부자에게 강제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닌 절대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윤리학의 구분 이해하기

(가)는 기술 윤리학, (나)는 규범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보고 각 사회의 도덕 관습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를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탐구함으로써 사람들을 도덕적 실천으로 이끄는 근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9.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베카리아의 주장이다. 그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일반 시민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의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여 형벌에 있어 유용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형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0. [출제의도] 인권의 종류 이해하기

(가)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 (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 받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나)에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적극적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인권은 일반적으로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의 특징을 지닌다.

11. [출제의도] 배아 실험 관련 논쟁 파악하기

갑은 배아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을은 배아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갑은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배아 실험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을은 배아는 생명체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배아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 [출제의도] 우대 정책 이해하기

㉠에 들어갈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은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이다. 따라서 ㉠에 대한 반론은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대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차별 시정을 위한 우대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는다.

13. [출제의도] 음양론의 입장에서 부부 관계 이해하기

(가)는 음양론에 대한 설명이며, (나)의 ㉠에 들어갈 말은 ‘부부’이다. (가)에서 음양은 상호 의존적 관계로서 조화를 이루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부부 관계는 우열에 따른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이어야 한다.

14. [출제의도]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매킨타이어의 주장이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속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맥락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덕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덕의 실천이 선한 삶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였

고, 도덕적 삶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이행보다 덕의 함양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 파악하기

갑은 칸트, 을은 밀, 병은 벤담이다. 칸트는 선의지에 의한 도덕 법칙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동기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반면 밀과 벤담은 최대 행복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한편 밀과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벤담이 쾌락의 양을 강조한 데 비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까지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출제의도] 죽음의 기준 이해하기

갑, 을은 모두 죽음을 과정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죽음을 판단하는 시점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갑은 뇌 기능 정지를 기준으로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뇌사의 입장이며, 을은 호흡 정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심폐사의 입장이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일부 기관의 기능 상실만으로 죽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아닌 세포 활동의 정지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바람직한 소비의 자세 파악하기

제시문은 과시적 소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과시적 소비는 사치품의 소비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확대되어 소비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절제된 소비를 해야 한다.

18.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니부어의 글이다. 니부어는 개인에 비해 집단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개인보다 집단의 도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단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힘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니부어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정치적 강제력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환경 윤리의 다양한 입장 이해하기

갑은 베이컨, 을은 테일러, 병은 칸트이다.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으로 인간의 진보를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여 지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으로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칸트는 동식물에 대한 배려가 인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라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관용의 자세 이해하기

(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 이해와 용서를 행하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강자의 입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는 가치와 행위들에 대해서 불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